

CTS (Conflict Tactics Scales) 2의 자녀용으로의 수정 및 한국 대학생에 대한 타당성 검증

The validation of property of the modification of CTS2(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for use of children on the university students of Korea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가정교육과
교수 백경임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yongju Campus, DongGuk Univ.
Prof. : Kyung-Im Baik

◀ 목 차 ▶

- | | |
|------------|------------|
| I. 문제제기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utility of the modified form of CTS2(the revised Conflict Tactic Scales) for use of children on university students of Korea. To attain this purpose, we modified Straus's CTS2(the revised Conflict Tactic Scale) for use of children. It consist of negotiation subscale, physical assault subscale, psychological aggression subscale and injury subscale without sexual coercion subscale.

The subjects consisted of 288 students from 19 to 24 of age. As results of analysis(correlation, factor analysis, Cronbach' α), reliability of subscales of CTS2 range from .83 to .98 and total reliability of CTS2 is .93. And there are evidences of construct validity(the convergent valid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CTS2.

we examine the prevalence of wife abuse behavior in our subjects' parents. There are the high prevalence of psychological aggression(75.7%) and physical assault(43.4%).

I. 문제제기

최근 들어 가정폭력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리고 일반 가정 안

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체적 폭력의 발생률에 있어 아동에 대한 부모의 폭력 사용율은 60-80%에 이르
고(고성혜, 1992),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은 적게
는 20-30%(이영숙, 1986; 한국여성개발원, 1990)부터

많은 50-70%(김정옥, 1988; 전형미, 1990)에 이르는 경험적 조사 결과들과, 컴퓨터나 여성의 전화, 성폭력 상담소 등과 같은 관련 임상기관에서 제시하는 아내학대의 심각성을 입증해 주는 각종 자료들, 남편의 구타가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여성의 남편 살해 사건들과 이에 대한 매스컴의 반응들이 그러한 사회적 관심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시대적으로 볼 때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의 초기에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학대가 연구의 초점이 되어 왔지만, 70년대 이후부터 그 동안은 개인적인 생활로 간주되어 철저히 은폐되어 왔던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관련된 연구의 연구방법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연구대상과 관련된 연구대상 선정의 문제, 또는 측정자료의 신뢰도 문제가 하나의 중요한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Rosenbaum, 1988). 그리하여 최근에는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의 측정에 있어 부부 당사자 보다 제 3자인 자녀의 자기보고 자료가 더욱 신뢰할 만 하다 (Breslin, Riggs, O'Leary와 Arias, 1990; Tang, 1994)는 주장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자녀들이 아내학대행위의 이러한 관찰경험결과로 나타나는 학습의 효과로 인해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남자는 가해자로서 여아는 피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사회학습이론의 주장을 근거로 했을 때 남편의 아내학대행위와 그 행위의 관찰자인 자녀의 관계가 보다 큰 의미와 중요성을 지니는 것이다.

그러나 남편의 아내학대행위를 측정하기 위해 자녀용으로 독자적으로 개발된 측정도구는 찾아보기가 어렵고, 지금까지는 Tang(1994)의 예처럼 주로 기존 남녀용으로 만들어진 설문지를 수정하여 자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최근 Straus, Hamby, Boney-McCoy와 Sugarman (1996)은 1974년과 1979년에 개발된 기존의 CTS에 대해 다른 연구자들이 지적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이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새로이 개정된 CTS2를 만들었다. 이것은 원래 기존남녀용으로써 우리 나라

에서도 타당도 검증 연구(손정영, 1997)를 통해 그 타당성이 입증 되었다. 그러나 척도의 문항진술을 일부 수정함으로써 제 3자인 자녀(청소년 또는 성인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도 CTS2를 이용할 수 있다고 연구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지의 지시문 중 '부부가 잘 지낸다 하더라도'를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잘 지내신다 하더라도'로 수정하고, '나(I)' 또는 '나의 배우자(my partner)'를 '나의 어머니'와 '나의 아버지'로 고쳐야 하며, 성적 폭력 문항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청소년의 형제자매간의 폭력이나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을 측정하는 도구로 CTS2의 응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Straus 등(1996)에 의해 개발된 CTS2를 자녀용 CTS2로 수정하여 대학생 남녀에 대한 이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살펴봄으로써, 이 도구를 사용하여 자녀를 대상으로 남편의 아내학대행위를 측정할 경우 그 결과가 타당할 것인지를 검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사용된 CTS2의 타당성이 입증될 경우 이를 사용하여 대학생 자녀가 본 오늘날의 아내학대 실태를 알아보려 한다. 이상의 연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CTS2를 자녀용으로 수정하여 이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다.
- (2)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자녀용 CTS2를 사용하여 우리 나라 대학생이 관찰한 남편의 아내학대실태를 알아본다.

II. 이론적 배경

1. 아내학대의 개념

아내에 대한 남편의 신체적, 비신체적 폭력에 대한 정의는 최근까지도 명확하게 규정되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연구자마다 아내학대(wife abuse), 아내구타(wife battering, beating), 아내에 대한 폭행(wife assault) 등의 용어들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초기의 연구자들은 폭력 또는 학대

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학대행위 중에서 합법적인 행위와 비합법적인 행위를 구별하는데 초점을 두었는데(Goode, 1971), 일례로 Goode(1971)는 신체적인 힘을 비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폭력(viole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과 같이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합법적인 경우는 'violence'라는 용어대신 'force'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포함한 가정 내에서의 모든 폭력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시각이 보편적이다. 특히 자녀에 대한 체벌만 하더라도 비록 그것이 규범적으로 허용된다 해도 그 선의에도 불구하고 다른 폭력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폭력성을 증가시켜 결국에는 폭력의 세대간 전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Bandura, 1973; Owen과 Straus, 1975)을 그러한 시각변화의 예로 들 수 있다. 따라서 아내학대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적 입장에서 폭력, 학대, 구타의 개념적 정의 안에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 성적 폭력 중 어느 것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관심의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학대'라는 용어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개념정의의 경향은 다시 두 가지 흐름으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학대를 폭력행위(violence behaviors)의 하위개념으로 정의하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학대를 구타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보고 신체적 폭력과 기타 비신체적 폭력을 포함시키는 입장이다.

이 중에서 학대를 폭력행위의 하위개념으로 정의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행위의 결과로 나타난 상해'에 초점을 두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내려진 정의로써 대표적으로 Gelles와 Straus(1979)는 타인에게 신체적 손상을 줄 의도로써 수행된 행위와 그러한 행위를 사용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폭력으로 보고 신체적 상해는 손바닥으로 때리는 행위부터 살인행위에 이르기까지를 그 범위로 보았다. Warner와 Brain(1982) 또한 Gelles와 Straus와 마찬가지로 남편의 아내에 대한 학대행위란 규범적, 법적 한계를 초

월하여 상해를 입히는 육체적 완력이라고 보았으며, 이외에도 김갑숙(1991), 김정옥(1987), 박경규(1994), 전형미(1990), Masi(1981), Scott(1974), Steinmetz와 Straus(1974) 등의 정의가 이와 동일한 입장에서 학대를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 연구의 대부분은 Gelles와 Straus(1979)의 정의를 따르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이와 달리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심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 성적 폭력과 같은 비신체적인 폭력들의 상호관련성과 실태의 심각성이 지적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폭력행위들을 모두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아내학대를 정의하는 두 번째 관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Straus 등(1996), Rodenberg와 Fantuzzo(1993), Hudson과 McIntosh(1981)가 이러한 관점을 대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내학대는 신체적 폭력은 물론 비신체적인 심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 성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되며, 이 때 아내구타는 아내학대행위의 하위개념인 신체적 폭력에 국한된 협의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Straus 등(1996)과 Rodenberg와 Fantuzzo(1993)는 이러한 관점에서 아내학대를 정의하고 각기 타당화 과정을 거쳐 CTS2(Conflict Tactics Scales)와 MWA(the Measure of Wife Abuse)라는 아내학대행위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런데 Rodenberg와 Fantuzzo(1993)의 경우는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 성적 폭력을 각기 구분하여 하위 척도를 구성한데 비해, Straus 등(1996)의 CTS2는 협상,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성적 폭력, 상해라는 다섯 가지 갈등해결유형에 대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에서 신체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 그리고 성적 폭력을 아내학대행위의 하위개념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이 도구는 Rodenberg와 Fantuzzo(1993)와 달리 언어적 폭력을 심리적 폭력 안에 포함시켰다는 척도구성상의 차이점이 있으며, 상해 척도는 아내학대행위의 측정을 위한 하위척도가 아니라 아내학대행위의 결과로써 별개의 변인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손정영, 1997).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Straus 등(1996)의 CTS2를 대학생 자녀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

성을 검증하는 만큼, Straus 등(1996)이 지적한 것처럼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척도만으로 척도를 구성하고 성적 폭력은 척도구성에서 제외시키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내학대란 '남편이 아내에게 신체적, 심리적 손상을 줄 의도로서 수행한 신체적, 비신체적 행위'로 규정되며, 이 정의 안에는 신체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으로 인한 상해나 정신적인 충격, 재산적 손실과 같은 아내학대행위의 결과변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2. 아내학대행위의 보고자로서의 자녀

연구대상을 가해자인 남성, 피해자인 여성, 또는 자녀와 같은 제 3자 중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견해가 달라 과소보고할 가능성이 큰 남성보다는 피해 당사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Aris와 Beach, 1987)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종합적인 자료를 구해야 한다(Barling, O'Leary, Jouriles, Vivian, MacEwen, 1987)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이와 달리 가까이에서 부모의 상호작용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Breslin 등, 1990; O'Leary와 Arias, 1990; Tang, 1994, Tang, Critelli와 Porter, 1993)는 견해도 있다.

그런데 부부 중 한 명을 연구대상으로 할 경우, 남편의 경우는 폭력 자체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의 압력을 받음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는 과소보고의 경향이 나타나고(Aris와 Beach, 1987), 여성의 경우는 폭력 당함으로 인한 분노 때문에 자신이 경험한 폭력의 정도를 과대보고하는 경향이 있거나, 이와 대조적으로 폭력 당하는 것을 수치로 여겨 거짓응답을 하거나 과소보고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하여 남녀 각각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생기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최근에는 부부 두 사람을 모두 조사하는 방법을 가장 좋은 대안으로 보고 있으나 이 또한 문제점이 있다. 다시 말해서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할 경우 또한 남녀를 각기 연구대상으로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내는 과대보고를 하

고 남편은 상대적으로 과소보고를 함으로써 부부간의 응답상의 일치도가 낮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arling 등(1987)의 연구에서와 같이 최종적으로 이들의 응답점수들을 종합하여 분석함으로써 폭력실태가 은폐될 가능성이 또한 있는 것이다(Rosenbaum, 1988).

그리하여 Tang(1994)의 주장처럼 가해자인 남성과 피해자인 여성이 아닌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제 3자인 자녀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오히려 정확한 아내학대행위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체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의 객관적인 측정은 가능하지만 Straus 등(1996)의 CTS2나 Rodengerg와 Fantuzzo(1993)의 MWA(the Measure of Wife Abuse)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아내학대의 범주에 포함된 성적 폭력의 객관적인 측정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성적 폭력의 실태가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부부를 대상으로 했을 때 생기는 신체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에 대한 측정의 오류가 자녀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부부 당사자보다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실보다는 득이 더 많은 대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CTS2의 특징

Straus 등(1996)이 개발한 CTS2의 특징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표 1 참고).

먼저 이 도구는 표면적으로 하위척도의 명칭이 바뀌었다. 즉 기존의 이성적 해결(reasoning)척도는 협상(negotiation)으로, 신체적 폭력(violence)은 신체적 폭력(physical assault)으로, 언어적 폭력(verbal aggression)은 비언어적인 분항이 추가되면서 심리적 폭력(psychological aggression)으로 바뀌었다.

두 번째 특징은 하위척도가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기존의 CTS는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이성적 해결이라는 3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었으나 개정된 CTS2에는 이외에 성적 폭력(sexual coercion)과 상해(injury) 척도가 추가되었다. 그리하여 아내학대에 국한시켜 보면 성적 폭력척도가 새로이 추가되었으

〈표 1〉 기존의 CTS와 CTS2의 문항구성의 비교(손정영, 1997)

CTS(기존척도)		CTS2(개정된 척도)	
하위척도명	문항수	하위척도명	문항수
		〈일부 수정된 척도〉	
신체적 폭력(violence)	9	신체적 폭력(physical assault)	12
언어적 폭력(verbal aggression)	6	심리적 폭력(psychological aggression)	8
이성적 해결(reasoning)	3	협상(negotiation)	6
		〈추가된 척도〉	
		성적 폭력(sexual coercion)	7*
		상해(injury)	6
	18	총 문항수	39

* 성적 폭력척도는 본 연구에서 제외됨.

며, 기존의 언어적 폭력이 심리적 폭력으로 바뀌면서 비언어적인 심리적 폭력 문항이 첨가되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도구를 자녀용으로 수정할 경우에는 성적 폭력척도는 제외된다.

셋째, CTS2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각 하위척도의 문항수를 늘리고 척도간 문항차이를 줄이고자 하였는데, 이것은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네 번째의 변화 특성은 각 하위척도의 수준을 구분하였다는 점이다. 즉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성적 폭력, 그리고 상해는 약한(minor) 수준과 심한(severe) 수준으로 구분하였고, 협상은 감정적(emotional) 협상과 인지적(cognitive) 협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마지막 특성은 문항배열상의 변화이다. 기존에는 이성적 해결,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의 순으로 배열하여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갈등해결유형부터 먼저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강도 높은 폭력에 대한 문항으로 끝나도록 했던 것을 무선적인 문항배열로 바꾸었고, 기존에는 본인에 대한 응답을 모두 하고 배우자의 행위에 대한 응답을 하도록 설문지가 구성되었으나 CTS2에서는 한 문항에 대해 자신이 응답한 바로 다음 줄에 동일한 내용에 대한 배우자의 응답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어 질문의 반복을 피함으로써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Straus 등, 1996).

그 외 세부적으로 폭력행위에 대한 문항진술을 보다 구체화시킴으로써¹⁾ 보다 정확한 아내학대의 측정이 가능하도록 고려하였다.

그리하여 전체적으로 Straus 등(1996)은 보다 다양한 폭력행위를 포함시키고, 응답자의 응답 왜곡현상을 줄이는데 개정의 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19세에서 24세 이하의 남녀 대학생이며, 남녀 비율, 학년 및 연령, 전공, 그리고 지역적 균형을 고려한 의도적 표집방법을 통해 표집하였다.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설문지의 수정을 위한 예비조사와 본

1) 문항진술의 구체적인 예로 기존의 CTS에서 '무언가를 그/그녀에게 던졌다'라는 문항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배우자에게 던졌다'로 수정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문항의 경우 '다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응답자의 문항해석의 오류가능성을 줄이고 가해자의 가해의 의도를 분명히 하고자 한 것이다.

조사로 진행되었다. 먼저 예비조사에서는 남자 대학생 25명과 여자 대학생 25명을 대상으로 각 분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 문항의 진술을 수정하였다.

본 조사는 1997년 7월 14일부터 8월 21일까지 서울, 대구, 경주에 소재 하는 대학의 남녀 학생 각 17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배부된 340부의 설문지 중 남학생의 경우는 21부, 여학생의 경우는 31부가 부실 기재되어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그리하여 남학생의 설문지 149부와 여학생의 설문지 138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혼남녀용으로 개발된 Straus 등 (1996)의 CTS2를 성적폭력척도 7문항을 제외시킴으로써 자녀용으로 수정하여 신체적 폭력척도 12문항, 심리적 폭력척도 8문항, 상해척도 6문항, 그리고 협상척도 6문항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 중 아내학대행위를 측정하는 척도는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척도이고 상해척도는 폭력의 결과변인이며 협상척도는 두 가지 폭력척도와 더불어 부부간의 갈등해결방법의 하나가 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인 대학생 및 그 부모의 일반적인 특성과 자녀가 본 아내학대의 실태는 평균 및 표준편차와 빈도 및 백분율로 구하였다.

둘째, 자녀용으로 수정된 CTS2의 신뢰도 검증의 첫 단계로 부적절한 문항을 변별하기 위해 CTS2 하위척도와 각 분항간의 상관계수를 구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각 분항의 요인부하량을 구하였으며,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상해, 협상의 각 하위척도별로 분항들이 묶이는지를 보기 위해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 나타난 각 하위척도들과 전체 CTS2의 Cronbach의 α 값을 구하였다.

셋째, 자녀용으로 수정된 CTS2의 타당도 검증의 절차로 요인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²⁾를 구하였다. 구성타당도는 세부적으로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변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로 구분된다. 수렴타당도는

먼저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상해, 그리고 협상척도의 각 분항들이 이 하위척도별로 묶이는지를 보았고, 다음으로 상해와 신체적 폭력, 그리고 신체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척도간의 상관관계를 보았다. 그리고 변별타당도는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상해, 그리고 협상척도의 분항들 중에 다른 하위척도로 묶이는 문항은 없는지를 먼저 보았고 다음으로 협상과 상해척도간의 상관계수를 구하여 검증하였다.

이상의 자료 분석은 SAS PC program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 및 부모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먼저 조사대상인 남녀 대학생의 평균 연령은 22.6세이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각각 52.9세, 48.9세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나는 자녀가 관찰한 남편(아버지)의 아내(어머니)학대의 실태는 40대 후반과 50대에 해당되는 부부들의 실태로써 다소 편중된 자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내학대의 실태 파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대학생에 대한

2) 구성타당도의 평가방법으로는 다속성측정방법, 논리적 구성타당도, 그리고 요인분석이 있다. 다속성측정방법은 2개 이상의 개념에 대해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각각 2개 이상 개발하고 동일한 개념에 대해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된 측정값간의 상관관계를 구하는 평가방법이고, 논리적 구성타당도 방법은 이론적 근거 하에 개념들간의 관계가 예상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 여부를 상관계수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며, 마지막 요인분석을 통한 방법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항목들이 동일한 요인으로 묶이는지, 그리고 다른 성격의 항목들이 서로 배타적으로 묶이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다(김범중, 1988). 본 연구는 이 중에서 요인분석을 통한 방법과 논리적 구성타당도를 타당도 검증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 성	평균(SD)/빈도(%)	
본인(자녀)연령	평균 22.6세(SD=1.92)	
아버지연령	평균 52.9세(SD=5.08)	
어머니연령	평균 48.9세(SD=5.09)	
아버지학력	대학원졸	18(6.2%)
	대 졸	56(19.4%)
	고 졸	148(51.4%)
	중 졸	50(17.4%)
	국졸이하	16(5.6%)
어머니학력	대학원졸	4(1.4%)
	대 졸	37(12.8%)
	고 졸	115(39.9%)
	중 졸	84(29.2%)
	국졸이하	48(16.7%)

자녀용 CTS2의 사용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인 만큼 부모의 연령보다는 오히려 당사자인 대학생의 분포에서 대표성이 요구되며, 이러한 요건은 본 연구의 자료수집과정에서 대학생의 성비, 학년, 전공을 감안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학력을 보면, 아버지의 중심연령대가 50대인만큼 고졸의 비율이 51%로 가장 높고, 대졸, 중졸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경우는 고졸의 비율이 남편들에 비해 10% 정도 낮으며, 그 다음으로 중졸, 국졸 이하, 대졸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전체적으로 고졸 이상의 비율만 비교하자면 아버지의 경우는 고졸 이상이 77%인데 비해 어머니의 경우는 59.7%이고, 대졸 이상인 경우도 아버지는 25.6%인데 비해 어머니는 14.2%로 나타나 대학생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분포를 비교했을 때 아버지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2. 자녀용으로 수정된 CTS2의 신뢰도 검증

자녀용 CTS2의 신뢰도 검증의 세부적 절차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 문항들이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상해, 그리고 협상하위척도의 개념을 잘 나타내는지를

보기 위해 이들 각 하위척도들과 이 척도들을 구성하고 있는 문항간의 상관계수를 구하였고, 1차 요인 분석을 통해 나온 요인부하량을 구하였다. 그 결과 각 하위척도와 각 문항간의 상관계수 중에서 가장 낮은 것이 .48이었고³⁾, 〈표 3〉 32개의 문항 중 가장 낮은 요인부하량을 가진 문항이 25번의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협상을 제시하였다는 문항으로써 요인부하량이 .32로 나타나 척도에서 제외시킬 문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따라서 자녀용 CTS2의 32문항 모두가 전체 척도의 적절한 구성요소임을 알 수 있다.

다음 단계로 주요인분석(Principal factor analysis)을 통해 32개 문항들이 각 하위척도별로 묶이는지를 보았는데, 그 결과 상해척도문항들이 신체적 폭력척도와 심리적 폭력척도에 분산되어 각각의 요인으로 묶이면서 협상을 포함하여 총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그리하여 이를 다시 직교회전(Varimax rotation)한 결과, 표 4와 같이 요인 I: 신체적 폭력, 요인 II: 심리적 폭력, 요인 III: 상해, 요인 IV: 협상이라는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 중 첫 번째 요인인 신체적 폭력척도의 설명력이 47.5%로 가장 높았으며, 4개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87.6%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신뢰도 검증의 마지막 단계로 각 하위척도 및 전체 CTS2의 내적일치도지수(Cronbach의 α 값)를 구하였는데, 하위척도는 .83-.98의 Cronbach의 α 값을 나타냈고, 전체 CTS2의 Cronbach의 α 값은 .93으로 나타나, 자녀용으로 수정된 CTS2의 신뢰도가 입증되었다.

3. 자녀용으로 수정된 CTS2의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자녀용으로 수정된 CTS2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신뢰도 검증과정과 병행하여 주요인분석(Principal factor analysis)에 의한 직교회전

3) Kerlinger는 이러한 상관관계에서 상관계수가 .30 이상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보았고 .20 이상이면 후속 연구에서 가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Kerlinger 저, 고희화·김현수·백영승 역, 1989).

〈표 3〉 자녀용으로 수정된 CIS2 하위척도와 각 문항의 상관계수(r) 및 내적일치도지수(α)

문	항	r
협상(negotiation: $\alpha = .83$)		
1.	두분 간에 서로 의견이 달라도 아버지는 그 문제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 주셨다.	.60
2.	두분 간에 의견이 다를 경우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입장을 설명하셨다	.66
7.	아버지는 다투게 된 문제에 대한 어머니의 감정을 존중해 주셨다	.61
18.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두분이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59
25.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협상을 제의하셨다	.50
32.	아버지는 어머니가 제시한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데 동의하셨다	.67
심리적 폭력(psychological aggression: $\alpha = .93$)		
3.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거나 욕을 했다	.75
11.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똥똥하다거나(말랐다거나) 못생겼다고 말했다	.58
13.	아버지는 어머니의 소유물을 부수었다	.80
16.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고향지르거나 소리를 질렀다	.69
22.	아버지는 화가 나서 발을 세게 구르거나 문을 세게 닫았다	.67
27.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쓸모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83
28.	아버지는 어머니를 괴롭히는 악의에 찬 말을 했다	.84
29.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겠다고 위협했다	.83
신체적 폭력(physical assault: $\alpha = .98$)		
4.	아버지는 어머니를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어머니에게 던졌다	.94
5.	아버지는 어머니의 팔을 비틀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97
8.	아버지는 어머니를 밀었다	.91
9.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칼이나 총을 사용하였다.	.96
12.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으로 아버지는 어머니를 쳤다	.98
15.	아버지는 어머니의 목을 졸랐다	.95
17.	아버지는 어머니를 벽쪽으로 세게 밀어붙였다	.97
20.	아버지는 손으로 어머니의 몸을 때렸다	.95
21.	아버지는 어머니를 꼭 움켜 잡았다	.94
23.	아버지는 어머니의 뺨을 때렸다	.98
26.	아버지는 뜨거운 물이나 불로 어머니에게 고의로 화상을 입혔다	.94
31.	아버지는 어머니를 발로 찼다	.98
상해(injury: $\alpha = .85$)		
6.	부부싸움으로 어머니는 뼈거나 타박상을 입거나, 작은 상처가 생겼다	.70
10.	다툼 중에 아버지가 어머니의 머리를 때려 어머니가 기절하셨다	.62
14.	부부싸움에서 다쳐서 어머니는 병원에 갔다	.71
19.	부부싸움 때문에 어머니는 몸이 아파 의사를 찾아가야 했지만 가지 않았다	.64
24.	부부싸움으로 어머니의 뼈가 부러졌다	.48
30.	부부싸움으로 어머니는 그 다음날까지 몸이 아팠다	.64
자녀용 CIS2의 전체 내적일치도 지수(α)		.93

(Varimax rotation)을 실시함으로써 구성타당도를 구하였다. 그리하여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상해, 그리고 협상 하위척도가 비슷한 성격의 문항들로 구성되었는지를 살핀 결과, 신뢰도 검증과정에서 나

타난 바와 같이 요인 I: 신체적 폭력, 요인 II: 심리적 폭력, 요인 III: 상해, 요인 IV: 협상이라는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수렴타당도), 다른 성격의 요인에 적재된 문항은 없었다(변별타당도), 그리고 4요인의

<표 4> 자녀용으로 수정된 CTS2의 요인 행렬표(n=288)

문항번호	요인 I	요인 II	요인 III	요인 IV	h ²
17	0.96	0.33	0.44	-0.17	.96
23	0.96	0.10	0.08	-0.17	.96
5	0.95	0.21	0.16	-0.17	.97
15	0.95	0.03	0.03	-0.16	.94
9	0.95	0.21	0.07	-0.15	.94
12	0.95	0.01	0.15	-0.16	.96
26	0.94	0.00	0.09	-0.15	.93
31	0.94	0.12	0.18	-0.18	.97
21	0.91	0.03	0.32	-0.12	.89
4	0.91	0.11	0.12	-0.13	.87
20	0.91	0.03	0.23	-0.17	.92
8	0.87	0.25	0.21	-0.18	.85
29	0.13	0.84	0.17	-0.13	.77
13	0.12	0.83	0.09	-0.26	.80
28	0.41	0.83	0.26	-0.20	.80
27	0.05	0.82	0.28	-0.15	.80
3	0.17	0.73	0.32	0.07	.65
22	0.08	0.71	0.16	0.14	.56
16	0.11	0.70	0.28	0.21	.63
11	0.03	0.66	0.10	-0.12	.48
6	0.47	0.19	0.84	-0.06	.76
30	0.25	0.25	0.82	0.02	.74
19	0.13	0.19	0.71	0.04	.57
14	0.26	0.23	0.69	-0.11	.62
10	0.37	0.20	0.48	-0.07	.43
24	0.23	0.09	0.38	-0.00	.34
2	-0.21	-0.03	0.02	0.74	.60
32	-0.12	-0.04	-0.16	0.71	.56
1	-0.25	-0.04	0.14	0.68	.56
7	-0.17	-0.09	-0.09	0.66	.49
18	-0.15	-0.11	-0.10	0.61	.43
25	-0.09	0.00	0.05	0.56	.32
Eigen 값	12.56	6.07	2.63	1.67	
설명변량(%)	47.5	23.0	10.7	6.3	
누가변량(%)	47.5	70.6	81.3	87.6	

설명력은 87.6%로 나타나 이 척도의 타당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더불어 Straus 등(1996)이 사용한 구성타당도 검증 방법으로 하위척도간의 상관관계를 구하였다. 그리하여 상해척도와 신체적 폭력

<표 5> 하위척도간 상관계수

하위척도	협 상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상 해
협 상	--	-.12	-.39	-.11
심리적 폭력		--	.58***	.52***
신체적 폭력			--	.62***
상 해				--

*** P<.001

척도, 신체적 폭력척도와 심리적 폭력척도, 그리고 협상척도와 상해척도간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이 중에서 상해척도와 신체적 폭력척도, 신체적 폭력척도와 심리적 폭력척도간에는 상관이 높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수렴타당도를 보고, 협상척도와 상해척도간에는 상관이 낮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변별타당도를 보았다. 그 결과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해척도와 신체적 폭력척도간에는 .52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적 폭력척도와 심리적 폭력척도간에는 .58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렴타당도가 입증되었다. 한편 협상척도와 상해척도간에는 -.11의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정된 CTS2의 변별타당도가 입증되었다.

이상과 같이 요인분석을 통해 4개의 하위척도가 4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통해 구성타당도가 입증됨으로 해서, 본 연구에서 수정한 자녀용 CTS2가 아내학대측정을 위한 적절한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이다.

4. 자녀가 본 아내학대의 실태

먼저 아내학대를 구성하는 하위척도별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인 신체적 폭력의 발생률은 43.4%로써, CTS2를 사용하여 데이트관계나 결혼, 동거관계에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학대행위를 측정했던 Straus 등(1996)의 연구에서 나타난 39%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고, 손정영(1997)의 52.5%보다는 낮다. 그리고 기존의 CTS1을 사용하여 기혼여성을

〈표 6〉 자녀용으로 수정된 CIS2 하위척도별 실태

하위척도유형	실 태(명:%)
신체적 폭력	125 (43.4)
심한 신체적 폭력	75 (26.0)
약한 신체적 폭력	114 (39.6)
심리적 폭력	218 (75.7)
심한 심리적 폭력	125 (43.4)
약한 심리적 폭력	214 (74.3)
상 해	79 (27.1)
심한 신체적 상해	47 (16.3)
약한 신체적 상해	71 (24.7)
협 상	244 (84.7)
감정적 협상	240 (83.3)
인지적 협상	219 (76.0)

조사하였던 김정옥(1985)의 연구결과인 44.73%, 김갑숙(1990)의 45.7%, 정복희(1993)의 44.4%와는 비슷한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CTS2를 사용했던 Straus 등(1996)의 연구결과 보다 신체적 학대율이 낮은 것은 그들의 연구에서는 동거, 결혼, 데이트 관계에 있는 대학생 자신들의 실태를 보고한 것이고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본 부모의 신체적 폭력행위를 측정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이와 더불어 Straus 등(1996)의 연구에서는 본인들의 행위에 대한 측정인 만큼 본 연구와 달리 성적 폭력 척도가 포함되었다는 차이점을 또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약한 신체적 폭력을 관찰한 비율은 39.6%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우리 나라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했던 김갑숙(1990)의 연구결과인 39.4%와 정복희(1993)의 연구결과인 31.6%와 비슷한 비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심한 신체적 폭력은 26%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김갑숙(1990)의 연구에서의 6.3%, 정복희(1993)의 연구에서의 16.9%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이다. 심한 신체적 폭력에서의 이러한 비율차이의 원인은 앞의 두 연구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문항이 다르다는 것과 피해자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인 자녀가 응답자라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리하여 척도의 문항구성에서의 차이를 고려한

다 하더라도 심한 폭력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단순 비교했을 때 자녀에 비해 피해자인 아내들은 심한 폭력의 피해사실을 과소보고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아내학대 사건의 당사자인 아내보다는 제 3자인 자녀의 보고가 보다 신뢰할 만 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것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타당성이 검증된 자녀용 CTS2와 기존의 CTS척도를 자녀에게 동시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는 후속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심리적 학대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75.7%의 발생률을 보였으며, 이는 김갑숙(1990)의 86.9%, 손정영(1997)의 90.3% 보다는 다소 낮고, Straus 등(1996)의 76%와 정서영·김명자(1990)의 78.1%와는 비슷한 비율이다. 그 중에서 심한 심리적 폭력은 43.4%, 약한 심리적 폭력은 74.3%로, 심리적 폭력의 발생률이 신체적 폭력의 약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리적 폭력 또는 언어적 폭력이 신체적 폭력의 전조가 되거나 신체적 폭력의 촉진제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Follingstad, Rutledge, Berg, Hause와 Polek, 1990)의 결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심리적 폭력의 이러한 높은 발생률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이러한 아내학대의 결과로 나타나는 상해의 실태를 보면, 전체 조사대상 대학생의 27.4%가 아버지의 구타로 인해 어머니가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고 응답하였는데, 특히 '다툼 중에 아버지가 어머니의 머리를 때려 어머니가 기절하셨다'거나 '부부싸움에서 다쳐서 어머니는 병원에 갔다. 부부싸움 때문에 어머니는 봄이 아파 의사를 찾아가야 했지만 가지 않았다. 부부싸움으로 어머니의 뼈가 부러졌다'는 심한 상해의 비율이 16.3%로 나타난 점 또한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이것은 손정영(1997)의 결과에 비해 다소 낮은 비율이다. 미국의 경우 살해된 여성의 1/3이 남편이나 남자 친구에 의해 살해된다는 보고(Martin, 1992; Gelles와 Straus, 1979)와 관련지어 볼 때, 우리 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심한 상해의 결과로서 남편의 아내살해행위가 공공연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우리 고

유의 폐쇄적인 문화적 기제로 인해 이러한 심한 상해의 실태가 은폐되고 있을 가능성 또한 크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협상의 경우 Straus 등(1996)의 99%, 손정영(1997)의 98%에 비해 다소 낮은 비율이긴 하지만, 자녀들의 보고에 따르면 84.7%의 부부들이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협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감정적 협상에 해당되는 '두 분간에 서로 의견이 달라도 아버지는 그 문제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 주셨다, 아버지는 다투게 된 문제에 대한 어머니의 감정을 존중해 주셨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두 분이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의 비율이 인지적 협상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협상의 비율이 높은 것은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현상이긴 하지만 심리적 학대율이 70%를 상회하고 신체적 학대율이 40%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오로지 협상이라는 우호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부부의 비율은 소수에 이르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는 갈등해결방법의 하나인 협상과 아내학대의 결과인 상해, 그리고 아내학대를 구성하는 신체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의 발생실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아내학대의 경우, 자녀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10명 중 4명 이상의 아내들이 남편으로부터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으며, 10명 중 7명 이상의 아내들이 또한 심리적인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나라의 아내학대의 실태가 매우 심각하며, 문화적인 폐쇄성과 사생활에 대한 무관심을 이유로 사회적으로 무관심하게 덮어둘 수 있는 문제가 더 이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 안에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많은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촉발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은 이들에 대한 상담서비스와 쉼터의 제공, 법적 서비스와 의료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가해 남편에 대한 치료나 법적 조치와 같은 직접적인 개입전략의 형태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개발된 CTS2를 자녀용으로 수정하고 이것의 자녀에 대한 이용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을 연구의 기본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3개 도시에 소재 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288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신뢰도 검증을 위해 자녀용으로 수정된 CTS2의 각 하위척도와 그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각 문항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고, 요인분석 후 요인부하량을 살펴본 결과 32개의 모든 문항이 척도의 구성요소로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나 제외된 문항은 없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자녀용으로 수정된 CTS2의 하위척도들이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협상, 성적 폭력, 상해라는 4개 요인으로 묶이는 것이 확인한 후, Cronbach의 내적일치도 지수(α)를 구하였는데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83-.98)와 전체 CTS2에 대한 신뢰도(.93)가 입증되었다.

둘째, 타당도는 요인분석을 통해 각 하위척도가 요인으로 잘 묶이는지를 보았고, 이와 더불어 구성타당도를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상해와 신체적 폭력, 그리고 신체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척도간의 상관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렴타당도가 입증되었고, 협상과 상해척도간의 낮은 상관계수가 나타나 변별타당도가 입증됨으로써 자녀용으로 수정된 CTS2의 구성타당도가 입증되었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됨으로써 본 연구에서 자녀용으로 수정한 CTS2의 우리 나라 대학생 자녀에 대한 적용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아내학대행위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단점을 겪지 않고 보다 안정적인 방법으로 남편의 아내에 대한 학대행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아내학대인 신체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 및 갈등해결유형인 협상과 아내학대행위의 결과인 상해의 실태를 살펴보았는데, 먼저 협상의 경우 이것

을 갈등해결방법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남녀 84.7%로 높게 나타났고, 상해는 27.4%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폭력은 75.7%, 신체적 폭력은 43.4%로 나타나 자녀가 관찰한 부부간의 아내학대 실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의 의의, 제한점, 그리고 관련된 미래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아내학대행위에 대한 측정상의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녀를 보고자로 활용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이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방법론적으로 볼 때 표본의 크기가 제한되고 표집지역이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대표성의 문제가 있으며, 특히 대학생 이외의 연령에 있는 자녀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볼 때 청년기 이외의 발달단계에 있는 자녀에 대한 이 도구의 적용가능성은 추후에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의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내학대행위의 당사자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고와 자녀의 보고를 비교하거나 자녀를 대상으로 두 종류 이상의 아내학대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실태를 측정 후 비교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자녀가 보고한 아내학대의 실태자료가 객관성을 띤 것이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 것이 기본 목적인 만큼 자녀의 보고자료 자체에 대한 이러한 객관성과 주관성의 문제는 별개의 연구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CTS2 중 신체적 폭력척도와 심리적 폭력척도를 아내학대행위의 측정을 위한 도구로 보았고, 그 외 협상척도는 갈등해결의 한 유형으로 보고 상해척도는 아내학대행위의 결과라는 별개 성격의 척도로 보고 있다. 그런데 Straus 등(1996)이 지적한 것처럼 일부 연구자들은 기존의 CTS를 사용하면서 협상에 해당되는 이성적 해결척도는 제외시키고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척도만을 사용하거나 신체적 폭력척도분항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이 척도가 가진 본래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예가 된다. 즉 협상분항의 경우는

응답자로 하여금 부부간의 심각한 갈등상황에서 자신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이후의 심리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분항에서 보다 솔직한 응답을 하게끔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Shehan(1995: Straus, 1996)에서 재인용)은 합법화(legitimation) 과정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Straus 등(1996)은 CTS2의 분항배열을 무작위순으로 하면서도 의도적으로 협상의 두 분항을 맨 앞으로 옮기고 가장 심한 폭력분항 2개를 제일 마지막으로 옮긴 바 있다. 따라서 미래 연구에서 본 연구의 수정된 CTS2를 사용할 연구자들은 이 척도의 신체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에 해당되는 분항만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협상분항과 상해분항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측정자료의 타당도를 확보하는 길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고성혜(1992), 아동학대 개념규정 및 아동학대에 대한 모,자녀의 지각성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 김갑숙(1991), 부부갈등이 부부폭력과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 김법종(1988), 사회과학 연구조사 방법론 워크북, 서울: 석정.
- 4) 김정옥(1985), 도시부부의 갈등해결표출방법에 관한 연구-폭력행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3(2), pp. 91-110.
- 5) 김정옥(1987), 도시주부의 폭력행위에 관한 연구-아내에 대한 폭력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6) 박경규(1994), 기혼남성의 스트레스와 폭력과의 관계분석,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7) 손정영(1997), 갈등대처유형척도(CTS2)의 한국 부부에 대한 타당성 연구-남편의 갈등대처 유형 및 아내학대행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 pp. 51-87.
- 8) 이영숙(1986), 한국 도시가족 부부간의 지위관계

- 와 부인학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9) 전형미(1989), 남편의 스트레스가 아내학대에 미치는 영향. 효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0) 정복희(1993), 아내학대가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 효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1) 정서영 · 김명자(1996), 부부간의 심리적, 신체적 학대, 대처양식과 개인의 적응도. *대한가정학회지*, 34(2), pp. 217-230.
 - 12) Arias, I., & Beach, S. R. H.(1987), Validity of self-reports of marital violence, *J. of Family Violence*, 2(2), pp. 139-149.
 - 13) Bandura, A.(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New Jersey: Prentice-Hall.
 - 14) Barling, K. J., O'Leary, D., Jouriles, E. N., Vivian, D., & MacEwen, K. E.(1987), Factor similarity of the Conflict Tactics Scales across samples spouses, and sites: Issues and implications, *J. of Family Violence*, Vol 2, No. 1, pp. 37-54.
 - 15) Breslin, F. C., Riggs, D. S., O'Leary, K. D., & Arias, I.(1990), Family precursors: Expected and actual consequences of dating aggression, *J. Interpers. Viol*, 5, pp. 247-256.
 - 16) Follingstad, D. R., Rutledge, L. L., Berg, B. J., Hause, E. S., & Polek, D. S.(1990), The role of emotional abuse in physically abusive relationships, *J. of Family Violence*, 5(2), pp. 107-120.
 - 17) Gelles, R. J., & Straus, M. A.(1979), Determinants of violence in the family: Toward a theoretical integration, In Burr, W., Hill, R., Nye, F. I., & Russ, I.(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Vol 1)*, New York: The Free Press.
 - 18) Goode, W. J.(1971), Force and violence in the family, *J. of Marriage and Family*, 32(4), pp. 624-636.
 - 19) Hudson, W. W., & McIntosh, S. R.(1981), The assessment of spouse abuse: Two quantifiable divisions, *J. of Marriage and Family*, 43(4), 873-885.
 - 20) Kerlinger 저, 고흥화 · 김현수 · 백영승 역(1989), *사회-행동과학 연구방법의 기초*, 서울: 성원사.
 - 21) Masi, D. A.(1981), *Organizing for women: Issues, Strategies and services*, NY: Lexington: Health.
 - 22) Martin, D.(1992), 정세웅 역, *매맞는 여자들*, 서울: 한국문연.
 - 23) O'Leary, K. D., & Arias, I.(1986), Assessing reliability of reports of spouse abuse, In Hotaling, G. & Finkelhor, D.(eds.), *Proceedings of the family violence conference*, CA: Sage.
 - 24) Owens D. J., & Straus, M.(1975), The social structure of violence in childhood and approval of violence as an adult, *Aggressive Behavior*, 1, pp. 193-211.
 - 25) Rodenberg & Fantuzzo(1993), The Measure of Wife Abuse: Steps toward the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assessment technique, *J. of Family Violence*, 8(3), pp. 203-228.
 - 26) Rosenbaum, A.(1988), Methodological issues in marital violence research, *J. of Family Violence*, 3(2), pp. 91-104.
 - 27) Scott, P.D.(1974), Battered wives, *British j. of Psychiatry*, 125, pp. 433-441.
 - 28) Steinmetz, S. K., & Straus, M. A.(1974), *Violence in the family*, New York: Harper & Row..
 - 29) Straus, M., Hamby, S. L., McCoy, S. B., & Sugarman, D. B.(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30) Tang, C.(1994), Prevalence of spouse aggression in Hong Kong, *J. of Family Violence*, 9(4), pp. 347-356.
 - 31) Tang, C., Critelli, J. W., & Porter, J.(1993), Motives in sexual aggression: The Chinese context, *J. Interpers. Vio*, 8(4), pp. 435-445.
 - 32) Warner, C. G. & Brain, C. R.(1982), *Management of the physically and emotionally abused: Emergency assessment, intervention and counselling*, Norwalk: Appienton-Centary Cropts.